

Q3 | 산불은 어떤 방법으로 진화하나요?

A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진화헬기와 지자체 임차헬기가 즉시 출동하고, 지역 산불 예방진화대가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진화를 시작합니다. 진화헬기는 총 207대 이고 9천6백여 명의 산불예방진화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.

산불은 일반화재와는 진화환경 및 장비에 다소 차이가 있어 산림청 소속의 산불진화대가 산림 진화 및 잔불, 뒷불 정리를 담당하고, 소방에서는 주택, 민가 등 시설물 보호와 인명구조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. 산불확산이 우려될 경우 진화헬기를 추가 투입하고, 소방청과 국방부에 헬기지원을 요청합니다. 또한 산림청에서 광역단위로 운영하는 공중·특수진화대를 즉시 투입합니다. 공중진화대는 104명, 특수진화대 413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.

<산불진화대의 종류와 역할>

구분	산불특수진화대 (공무직,기간제)	산불예방진화대 (기간제)	공중진화대 (공무원)
운영규모 (‘24년 기준)	413명 (1개대 당 12명 내외)	9,604명	104명 (1개대 당 4~5명)
운영주체	국유림관리소, 지자체	국유림관리소, 지자체	산림항공관리소
운영기간	연중	6개월	연중(공무원)
주요대상	난이도가 높은 산림 [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,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,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역 우선 투입]	평이한 산림 [일반 산불진화 투입]	암석지, 고산지 등 [헬기인명 구조]
기타사항	인접 시·군 주민으로 산불진화에 전문으로 투입됨(평균 41세)	지역 주민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활동에만 투입됨(평균 61세)	특수진화대 훈련 및 공동투입과 인명구조 활동

※출처 : 산불방지와 제공